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에 7월 정기 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강화 성광수도원에서 열립니다.

8, 9월 설거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홍천 동면교회에서 재배한 친환경 무농약 옥수수를 판매합니다. 20개 14,000원 10개 8,000원입니다.

휴가철입니다. 먼 길 오고갈 때 안전 운전 및 절약 운전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절전, 절수,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호 1:2~10 / 시 85 골 2:6~15 / 눅 11:1~13
-----------------------------------------

미정
----

식 당 봉 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오정은 정선희 이광욱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왕영순 정복순 이성범 오늘설거지봉사 : 두란노 3속 다음 주 설거지 : 미정 새 교 우 : 오형일(5남) 김명하(7여) 이지하(6여) 한정훈(4남) 김용규(4남) 송 명(7여) 이승엽(청) 떡 대 접 : 이순용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더위와 분주한 일상에 지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물가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등목처럼, 하늘의 시원한 기운으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휴전의 상태일 뿐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한반도가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상준 최경미 김남종 오복순 김문주 김승현 김수진 김윤수 김종문  
 김종철 고영애 김준호 곽해자 김필순 김흥기 김희진 박홍재 문금석  
 박규석 박경선 박영희 변재민 이소혜 송동준 김진경 양상철 박재란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봉옥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호원  
 임성은 임 영 정경례 장근성 박희순 정완수 김재광 정종삼 정현모  
 주경진 이윤정 최미자 최종원 한상익 정영선 허명선 허신열 허준호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 감사헌금

김 극 김민지 김성공 전해민 김종수 이순정 김희우 송형철 오미경  
 윤미경 윤수진 이범석 류정욱 이병수 이인태 홍순구 안홍숙 무명8

### 생일감사헌금

송 명 신영신

### 녹색꿈헌금

김만균 노성희 김철수 유영남 이애리 무명5

	장혜숙 노순옥 김재흥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향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심	심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 비 오는 날에

내 우산살이 너를 찌른다면, 미안하다  
 비닐 우산이여  
 나의 우산은 팽팽하고  
 단단한 강철의 부리를 지니고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이 없었거니  
 이제는 걱정이 된다  
 빗속을 함께 걸어가면서 행여  
 댕달 몇 개가 엉성하게 받치고 선  
 네 약한 푸른 살을 찢게 될까 두렵구나  
 나의 단단함이 가시가 되고  
 나의 팽팽함이 너를 주눅 들게 한다면  
 차라리 이 우산을 접어 두겠다  
 몸이 젖으면 어떠랴  
 만물이 녹녹한 슬픔에 녹고 있는데  
 빗발이 드세기로  
 우리의 살끼리 부대낌만 하라  
 비를 나누어 맞는 기쁨,  
 젖은 어깨에 손을 얹어  
 따뜻한 체온이 되어줄 수도 있는  
 이 비 오는 날에  
 내 손에 들린 우산이 무겁기만 하다

- 나희덕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멈추어 자신의 안팎을 잘 살피십시오. 생명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 붙들음에서 힘이 나오고 빛이 나옵니다.

아멘. 세상의 갑갑함과 자신의 답답함 속에서 헤매듯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허망한 이야기와 그릇된 기준을 버리고 생명의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나 자신과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김기석 목사	설교 : 이범석 목사 기도 : 박범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재홍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김명희 집사 안홍숙 권사

7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송동준 김윤정 김현주 김진경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믿음으로 읽는 글

## 언더그라운드 교회의 선언문

- 로빈 마이어스 목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교회 운동의 선언문 -

언더그라운드 교회는 영(the spirit)의 운동이지, 그 자체를 영속화하려는 기관이 아니며, 사람들을 특정한 믿음체계에 헌신하도록 만들거나 인간의 계산에 입각하여 우주적인 약속을 남발하는 기관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전혀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언약이다. ...

언더그라운드 교회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그 운동을 인식하기 어렵다. 당신은 건물의 구조적 특징이나 예배방식에 입각해서 그 운동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교인들이 사랑을 위해 체제전복적인 방식으로 사는 일에 분명히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교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비교할 때, 언더그라운드 교회의 교인들은 독특하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제국의 가치들과 우선순위와는 다른 대안적인 가치들과 우선순위들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물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제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국의 미래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변화는 비폭력에 근거해야 한다. 그 운동은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이다. 그 운동의 특징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배려, 공감, 자기희생이다. ...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똑같이 자신들의 신학적 및 정치적인 노선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의 인간 가족의 자비로운 구성원들로서 살려는 열망으로 나아갈 것이다. ...

1. 언더그라운드 교회는 가능한 한 자주 예배 전이나 후에 실제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성만찬을 축하할 것이다. 그 식사는 공동체 회원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와 모든 참석자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도록 대접한다.
2. 언더그라운드 교회의 멤버십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사랑의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통해서인데, 그

구원하는 능력은 전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교리나 신조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공동체에게 드러나며 그 사랑을 통해 유지되는 능력이다.

3. 언더그라운드 교회의 예배 스타일과 음악은 의도적으로 다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서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개별적 공동체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음악과 예배형태를 결정할 것이며, 예배에 대해 보다 전통적이며 또한 덜 전통적인 방식 모두를 반영하는 예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4. 언더그라운드 교회의 교인들은 대항문화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선교사업에 헌신할 것이다. 우리는 비폭력, 철저한 환대, 집단적인 관용, 그리고 격려의 목회에 헌신할 것이다.
5. 언더그라운드 교회는 낮은 이득, 사회에서 잊혀지고 약하고 박탈당한 이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제국이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적들’로 차별할 때, 우리는 그들이 식탁에 참여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들을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6. 언더그라운드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체의 경제적 체계를 창조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교회의 운영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서약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그에 덧붙여 교인들이 특별히 열정을 갖고 있는 선교사업들에도 기금을 대도록 격려할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를 털어서 바울에게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먼저 베드로에게 지불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며 또한 바울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금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것이다.
7. 언더그라운드 교회는 옳은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신학적인 문제들에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동의할 것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우리는 서로에게 의심이 가져다주는 유익, 서로 간에 존경하는 일, 그리고 가장 희귀하며 가장 소중한 것, 즉 카이사르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성육하는 일에만 충성하기로 선언한 공동체가 되는 일의 아름다움을 나눌 것이다.

- 로빈 마이어스, 「언더그라운드 교회」 중에서